

사 회

■ 무등산 동적골에 1천개 돌탑 쌓은 박영모씨



24일 새벽 어김없이 동적골을 찾은 박영모씨가 돌탑을 단장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삶의 아픔 극복하려는 誓願
萬塔까지 쌓는게 남은 所願

“처음 4~5년은 고생했죠. 돌탑을 쌓아놓으면 누군가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광주 무등산 주변의 대표적인 산책로인 동구 동적골에 박영모(57·학동·금은방 운영)씨가 2008년부터 쌓은 1000여개의 돌탑이 계곡 주변에 웅기증기 늘어서 있다. 돌탑은 수가 늘었고 어느덧 동적골의 명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박씨는 게으른 사람들이 단장에 빠져 있을 새벽 5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동적골 주변을 청소하고 돌탑을 쌓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거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다. 무너진 탑을 단장하고 모양을 요리조리 공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가 이곳 주변에 돌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5년 전. 지인과 함께 동적골을 찾았다가 고향에 온 듯은 근한 매력에 빠져들었다. 그 후 이곳을 자주 찾게 되었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산행하는 이들이

계곡 물줄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다. 돌탑을 쌓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박씨는 지금은 정말 아무런 생각 없는 ‘무심’에서 돌탑을 쌓지만 과거를 돌아켜 보면 “나의 아픔을 헤쳐나가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 놓는다.

2001년 뇌졸중으로 큰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아니었겠느냐는 이야기다. 그런 마음으로 10년을 지내오다 지난해에는 간 절제 수술을 받았어도 거뜬히 극복해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무심’이라며 이상한 눈으로 보던 주위의 시선이 변했다. 관할 동구청도 산책로를 새로 내면서 박씨가 쌓은 돌탑을 고려해 경관을 꾸미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한다.

3년 전에는 동적골 주변을 청소하고 아름답게 꾸민 공로가 인정돼 구청장으로 부터 상과 함께 격려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등산객들이 발

로 툭 차서 무너뜨리곤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돌탑 위에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가곤 한다”면서 “사랑도 많이 다니고 사진 찍는 모습 볼 때면 한없이 흐뭇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큰 물이 저 돌탑이 망가지면 수련이라 생각하고 다시 쌓는데 꾸미다 보면 동물 형상 등 여러 모양이 나와 저절로 웃음이 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고생이라는 생각은 잊어 버린다”고 말했다.

살면서 작은 것이라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게 그의 작은 바람이다. 그의 목표는 현재 1000여개인 돌탑을 1만개까지 쌓는 것. 온갖 형상의 ‘만물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그는 “현재 계획한 것의 30% 정도 이룬 것 같은데, 맘을 먹은 이상 안될 일은 없다고 본다”며 자신했다. 동적골을 찾아 그를 만나면 따뜻한 미소라도 건넬으면 좋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초파일 연휴 초여름 날씨

낮기는 최고 30도 예상... 일교차 커

광주·전남지역은 주말과 석가탄신일(28일) 연휴동안 맑은 가운데 낮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내리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여수지역은 엑스포 관람을 위해 나들이에 적당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과 휴일인 26~27일 광주·전남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15~29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다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마지막날인 석탄일에는 낮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30도까지 오르겠다. 이 기간 동안 여수 지역은 구름이 조금 낀 가운데 16~25도 분포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분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올 여름 무덥고 비 많이온다

광주기상청 전망

올 여름 광주·전남 지역은 무더운 날씨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12년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에는 6월에 더운 날이 이어지고, 7월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다.

6월에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높아 더운 날이 많고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21~22도, 173~243mm)과 비슷하겠다.

7월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겠고, 점차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기온은 평년(24~26도)과 비슷하고 강수량은 평년(237~309mm)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8월에는 무덥고, 대류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25~26도, 193~307mm) 수준이다.

한편 올 여름 태풍은 6~8월 사이 모두 9~11개(평년 11.2개)가 발생해 이 가운데 1~2개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부처님 오신 날’ 다양한 봉축 행사

사찰음식 경연·불교영화 상영 등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 날(28일)을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봉축행사가 열린다.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주지 청학)는 28일 오전 11시 명고(鳴鼓)·명종(鳴鐘) 의식 등 불교 전통의례에 따라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이날 법요식에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거 초청되었으며 주한 스리랑카 대사 등이 참석 축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는 풍물·난타 공연 등 문화행사와 신도 장기자랑도 펼쳐진다.

장성 백양사에서는 봉축법회와 단청 체험행사가 열리며 해남 미황사, 구례 화엄사, 순천 송광사에서도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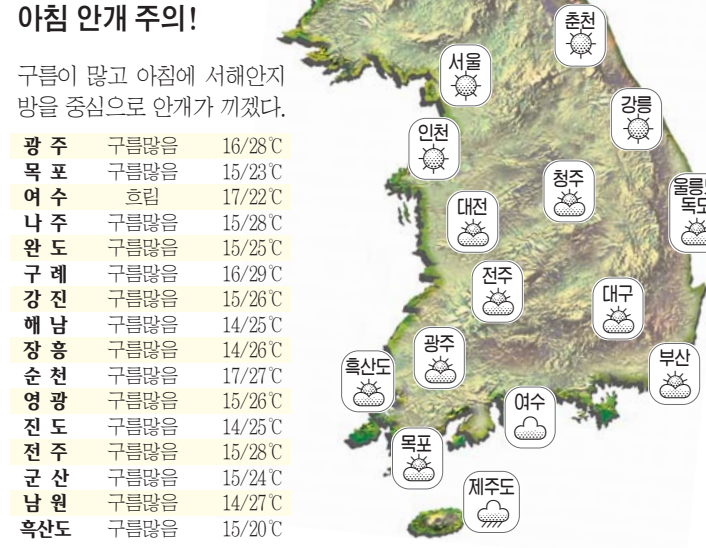
이에 앞서 25일 무각사에서는 제1회 광주사찰음식 경연대회와 음악회를 갖는다. 국립광주박물관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특별개관을 하는 한편 관람객들을 위해 불교영화도 상영하기로 했다.

한편 조계종 광주불교연대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공원일대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2분
해질 19시 37분
달돋이 08시 44분
달질 22시 55분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용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일몰	해질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목포 04:41	10:0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11:19	05:22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6(토)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날 씨						
최저/최고	15/29	16/29	16/29	17/29	17/26	18/25

랩으로 부른 교가는 어떨까

광산 성덕고등학교 첫 채택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교가에 처음으로 대중가요의 랩이 등장했다.

이달 초 광산구에 개교한 성덕고등학교는 랩(Rap·리듬감·운을 살려 이야기하듯 노래하는 음악 형식)이 포함된 교가를 채택했다.

학교측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가사를 공모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학년 8반의 작품을 뽑았다. 신입생 김동준군이 작곡을 맡았고, 전문 작곡가의 손질을 거쳤다.

교가 중 랩으로 부르는 대목은 “혁

신을 위해? 혁신을 위해! 혁신은 누가 있어? 성덕이 있어! 미래가 있어! 희망이 있어!” 소절이다.

학생들은 지난 5월 개교식에서 교가를 선보였다. “상투적으로 교가에 등장하는 산과 강, 00산의 정기받아 등이 빠져 신선하다”, “잠정하거나 행진곡 풍이 아니어서 좋았다”는 반응이 주류였다고 한다.

김광중 교장은 “교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참여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해 학생들이 작사·작곡한 교가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어촌 학교 통폐합’ 전남 교원단체 반발

공동통학구역 신설과 적정규모 학급수 유지에 골자로 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본보 5월24일자 7면)에 대해 전남지역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

미니학교와 공동화 지역 학교를 공동 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학생수를 20명 이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농산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개정령안이 확정되면 교과부가 제시한 학급수, 정원에 미달하는 전남지역 초·중·고 531곳, 전체 63.9%가 통·폐합 대상이 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은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CE 0120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상당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1538-9388**

■ 광주 구도청별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 광주 박문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